

나주시, 필리핀 팜팡가주와 교류·근로자 도입 협약

주지사·시장 일행 나주시 방문
고령화 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경제·관광·문화·예술·에너지
전력기자재 수출 등 산업 교류도



나주시와 필리핀 팜팡가주는 지난 4일 우호교류 협력 및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과 동시에 다양한 산업분야 교류를 추진기로 한 것은 전국 최초다.

나주시는 지난 4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필리핀 팜팡가주 및 팜팡가주 구아구아·산루이스시(市)와 '우호교류 협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윤병태 시장, 데니스 가르시아 피네다 팜팡가주지사, 앤서니 조셉 토레스 구아구아시장, 제이슨 사쿰 산루이스시장, 에스메랄다 가르시아 피네다 루바오시장 등이 참석했다

필리핀 북부 중앙 루손지방에 위치한 팜팡가는 인구 243만명 규모 22개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자치체로 필리핀 81개주 중 9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에스메랄다 G. 피네다 루바오 시장은 지난 7월 14일 방한 일정 중 나주시를 방문해 윤병태 시장과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 활성화를 최

초로 제안한 바 있다.
피네다 주지사 일행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해 우수한 전력 운용 시스템과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

나주시와 팜팡가주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농업을 비롯한 경제, 교육, 관광, 문화·예술, 에너지,

전력기자재 수출 등 다양한 산업분야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팜팡가주 2개 시와는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나선다.

협약식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따른 농업기술 전수, 근로자 선발 및 적응훈련 실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근로자 이탈 방지안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사회가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 속에 필리핀 팜팡가주와 우호교류,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지역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통해 자국에서 농업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니스 가르시아 피네다 주지사는 "협약을 통해 나주시와 팜팡가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양한 분야 교류·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이익과 발전이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나주=송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이청준 문학제 열려

장흥에서 작가 재조명
문학관 건립 방안 토론했



한국 현대문학계 거장인 고(故) 이청준 작가의 업적을 기리고, 나아가 문학관 건립을 위한 '이청준 문학제'가 열렸다. <사진>

지난 4일과 5일 이틀동안 장흥군민회관과 생가 등지에서 사단법인 이청준기념사업회(이사장 정명교) 주최로 전국 문학계 인사, 김성 장흥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해 이청준 작가를 재조명하는 소설영화 명장면 감상과 문학관 건립 방안토론행사가 진행됐다.

4일 작가를 함께 회고하며 추모하는 시간으로 이청준 소설의 영화작품 서편제·축제·밀양 의 감상과 소개가 진행됐다.

2부 행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중희 문학평론가(전 경희대 교수)는 "이청준 작가의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이청준 문학관을 건립해 문화적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 '귀족호도' 문화상품 자리매김

상표등록...세계농업기술상 수상
호도박물관 전국서 애호가 발길

한 때 먹지 못한 열매로 괘시 받았던 장흥 호도가 '귀족호도'로 변신, 지역 문화상품으로 우뚝 섰다.

이러한 신화가 가능했던 것은 상표 등록과 기술개발에 열중한 귀족호도박물관이 있어서 가능했다.

귀족호도박물관이 지난 4일 소박하면서도 아담한 '호도의 날'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물관은 지난 2003년 이후 올해로 20번째 호도를 사랑하는 애호가들과 함께 호도경진대회 이벤트를 치러왔다.

귀족호도는 지난 2002년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을 거쳐 기술개발을 통해 2003년에 세계농업기술상을 수상한 이후 서울 현대백화점(압구정 본점), 롯데백화점(소공동 본점) 등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다. 또 동남아를 뿐만 아니라 미주권 수출길에도 올랐다.

호도는 2각, 3각, 4각, 5각, 6각, 7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양을 갖춰 지난 2011년에 6각(홍화) 2018년에 7각(홍문) 귀물이 탄생하기도 했다.

김재원 귀족호도박물관장은 "우리농업을 문화·예술·역사로 육성발전 시키고자 20년 전 먹지도 못한 열매 호도가 귀중한 지역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귀족호도박물관은 지난 2020년에 전남도 민간장원 제13호인 '월넛치유정원'으로 지정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호도 애호가들이 호도경진대회 이벤트에 참가 호도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담양군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 속도...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광주·전남 유일한 '적정' 판정
기존 매립지 정비 12만㎡ 조성

담양군이 추진 중인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

인 담양군의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일사업으로 200억 이상의 예산 편성 시 정부가 검증하는 마지막 절차다.

담양군은 이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광주·전남지역 18개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적정' 판정

을 받았다. 담양군은 지역 미래가 걸린 현안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꼼꼼히 사업을 준비해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담양군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사업은 기존 생활 폐기물 매립지 매립용량의 93%가 매립 완료돼 사용종료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담양을 삼만리에 위치한 기존 매립지를 정비해 사용기간도 연장하고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매립지를 정비해 순환형 매립시설 12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47억 원이 투입되며,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국비 확보와 함께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담양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장성군, 디지털 공간정보 발전 기여 장관상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 실적 인정

장성군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간정보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간정보는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위치정보로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 제작 등에 활용된다.

장성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 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앞서 장성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 1차'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국비 14억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3차원 기반 데이터 구축과 행정활용모델 개발이 사업의 핵심이다

장성군은 행정활용 모델로 '정원 조성 시뮬레이션', '건축물 색채 디자인', '슬레이트 교체 지원 서비스', '주차안내 서비스', '현장조사 관리시스템' 등 5개 분야를 개발 중이다.

또 장성 전역의 도로·지하시설물 위치와 속성정보를 데이터로 만드는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도 중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진원면, 남면, 황룡면 데이터 구축을 완료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호남 유림 종장' 근재 정개청 선생 학술 강연회

함평서 열려...군민들 대상 강연

'호남 유림의 종장 근재 정개청 선생 학술 강연회'가 함평 학다리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사진> 지난 2일 열린 이날 강연회는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초대원장을 지낸 이종범 조선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근재 정개청 선생의 학문과 정치이상'에 대해 강의했다.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학생들과 함평 군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 강연회는 함평전지 포럼이 주최하고, 자선서원진흥회가 주관했으며 함평군, 함평군의회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자선서원진흥회 정영오 회장은 "5년 궤적 되고 6번째 지어진 자선서원은 세 계사까지 확대하여 살펴봐도 유례가 없다"면서 "조선시대 윤선도, 박손, 허목 같은 인물들이 근재 정개청 선생에 대해 호남유림의 종장이라 표현하였으나 지금의 자선서원은 전라도 종장을 모시는 사액서원답게 가꾸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안동서원, 소수서원에 도저히 견줄 수 없을 정도라면서 '호남 유림의 종장' 정개청과 자선서원은 우리 호남의 큰 자산이고, 자긍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벼 경영안정자금 신청하세요 강진군 다음달 2일까지 접수

강진군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받는다.

강진군은 12월 2일까지 '2022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해당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았다고 밝혔다.

도비 지급대상은 2022년도 기준 전남도에 주소가 있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 생산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으로 최대 2ha 한도로 지급된다.

추가 군비 지급대상은 강진에 주소가 있고, 강진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한 농업인에게 최대 3ha 한도로 지급된다.

대규모 경작 농가의 경우 농가 필지분할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접수 후 읍·면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농가 및 등록필지를 확인해 공동경영주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공무원 및 신청 전 연도의 농어업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신청접수가 2023년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농가들이 반드시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농업인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신청내역 확인, 현지 조사, 자격 검증 및 농가 신청내역 통보 등 행정절차를 통해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강진군 산불진화대·감시원 발대식 내달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강진군은 가을철 산불예방에 앞장설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임명했다.

강진군은 지난 1일 산불전문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올 가을 평년에 비해 적은 강우량과 건조한 날씨가 예보됨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종합상황실 통화에 11개 읍면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대원들은 산불예방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전문가를 초빙해 안전교육을 받았다.

또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 범죄행위에 근거하는 행위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